

● 바른 길을 걸어라.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튼튼하리라.
(잠언 4장 26절)

바르게 걷는 발길이 아름답다

“정직이나 친절이나 우정과 같은 평범한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,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.”

“군자와 소인의 구별은 義와 利에 있다. 군자는 주로 의를 존중하지만 소인은 이로움을 존중하기에 고심한다. 어떤 방법으로라도 소인을 잘 일러 주어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참된 군자의 도리이다.”

“나에게 착한 일을 하는 이에게는 나 또한 착하게 하고,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이에게도 나는 착하게 할 것이다. 내가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.” 이는 장자가 한 말이다. 이 말의 요지는 무엇인가. 正道를 가라는 것이다. 정도에는 不正한 일이 없는 법이다.